비뇨기과 전문의 정치영의

솔직, 대담한 性

너무 지나치면 …

65세의 홍승원(가명)씨는 소싯적 왕성한 성능력에 비하면 지금의 발기정도는 형편없어 고민이 많았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번 발기 되면 거칠 것 없이 잠자리를 누비던 홍씨, 그러나 언젠가부터 그의 심벌은 알게 모르게 시들시들해졌고 시동이 꺼지는 횟수가 잦았다.

발기유발제가 원인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이러저런 고민을 이야기 하던 홍씨는 음경에 직접 맞는 발기주사제가 있다는 말에 눈이 번쩍 뜨였고 벼르고 있던 차에, 어느 날 친구가 가진 발기주사제를 호기심으로 맞게 되었다.

즉각적인 효과와 한 시간이 지나도 꺼질 줄 모르는 음경을 보고 매우 흡족해 하던 홍씨는 그러나 어떻게 된 것인지 발기상태가 사그라지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 무섭게 여겨졌다.

서서히 통증이 심해지면서 발기상태는 자정을 넘어 4시간이상 지속되어 홍씨는 마침내 응급실로 내원했다.

독자들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질지도 모르는 이 상태는 발기가 성적자극과 관계없이 비정상적으로 지속되는 '음경지속발기증'이란 질환이다. 대부분에서 통증과 압통을 동반하며 의지와 상관없이 발기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4시간 이상 지속되면 즉시 치료를 요하는 응급상황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신생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고 약물, 감염, 외상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발병 가능하나, 임상적으로는 대개 사례와 같이 발기유발제에 의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아그라가 출현하면서 발기주사제가 많이 퇴색되었지만 예전에는 발기주사제 만한 것이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에 맞는 발기주사제 용량만 투여한 후 성교에 임해야 하나, 일부에서 더 강한 발기를 시켜볼 요량으로 초과 용량을 투여한다는 것에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 있다.

음경지속발기증을 빠른 시간 내에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발기를 일으키는 핵심구조물인 음경해면체의 섬유화를 초래하고 발기불능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단히 유의해야 한다. 다행히도 24시간 이내에 적절히 치료하면 발기기능 장애의 발병률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랴부랴 내원한 홍씨의 음경은 심한 통증을 동반하며 매우 단단하게 발기되어 있었다. 큰 주사바늘로 해면체를 늉어 고인 혈액을 빼내고 생리식염수로 약물과 함께 세척하니 홍씨의 음경은 수 분만에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만일 창피한 마음에 치료를 오랫동안 방치했다면 영구 발기불능으로도 될 수 있었다는 설명에 그제야 홍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방치되면 영구 불능 될 수도

한편, 비아그라 등의 경구용 발기치료제도 위와 같은 음경발기 지속상태를 유발할 수도 있으나 매우 드물다고 알려져 있다.

어쨌든, 어떠한 형태든지 발기유발제 등을 사용 시에는 비뇨기과 전문의의 지도하에 처방을 받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유불급(過猶不及). 이 말은 언제 어디서나 통하는 지혜가 아닌가 싶다.

〈테마필 피부·비뇨기과 원장〉

함께 풀어봅시다 < 25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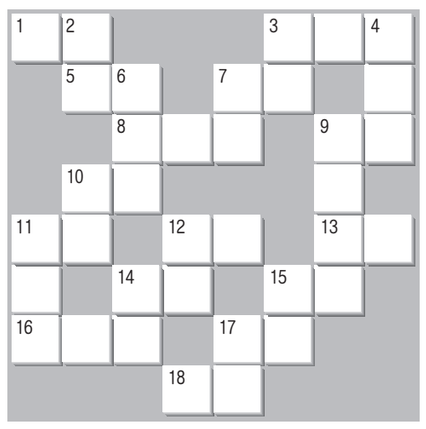
➔ 가로풀이

1.새싹이 파랗게 돋아나는 봄철이라는 뜻으로, 십 대 후반에서 이십 대에 걸치는 인생의 젊은 나이 또는 그런 시절을 이르는 말. ~ 남녀. 3.목의 뒤쪽 부분과 그 아래 근처를 이르는 말. ~를 잡히다. 5.도망하는 사람의 뒤를 밟아서 쫓음. 7.물고기의 탁본을 뜸. 또는 그 탁본. 8.어머니의 남자 형제. 9.밖으로부터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꾸며 놓은 방. 주로 사진 현상 등을 위해 사용한다. 10.엄격하고 공정하게 가리어 뽑는 일. 11.목숨을 겨우 이어 살아감. 12.해로운 벌레가 침범해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막음. ~ 시설. 13.다 자란 사람. 너도 이제 ~이 되었으니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하여라. 14.사리에 맞는 훌륭한 말. 또는 널리 알려진 유명한 말. 15.배탈 등으로 인해 묽은 변이 나오는 것. 또는 그 묽은 변. 16.철광석을 용광로에 녹여 철을 뽑아내는 일을 하는 곳. 17.시의 경비로 세워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 ~ 도서관. 18.방이나 건물 등의 안. ~ 온도. ~ 수영장.

2.봄과 가을. 또는 어른의 나이를 높여 이르는 말.→연세. 3.스님이 불공을 할 때나 사람들을 모이게 할 때 두드려 소리를 내는 기구. 나무를 둥글게 깎아 속을 파서 방울처럼 만들고 고리 모양의

↓ 세로풀이

손잡이를 단다. 4.사람의 용모, 두발, 외모 등을 단정하고 아름답게 해 주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집. →미장원, 미용원. 6.파장이 가시광선보다 길며 극초단파보다 짧은 750㎛~1mm의 전자파.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일반적으로 공기 가운데에서 산란되기 어려우며, 가시광선보다 투과력이 강하다. ~ 망원경.↔자외선. 7.어민들이 모여 사는 바닷가 마을. 9.조선 시대에, 임금의 특명을 받아 지



방관의 치적과 비위를 탐문하고 백성의 어려움을 살펴서 개선하는 일을 맡아 하던 임시 벼슬. ~ 출두야! 10.엄하게 명령함. 또는 그런 명령. 그 일에 개입을 하지 말라는 상부의 ~을 받았소. 11.범죄자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자에게 연대적으로 그 범죄의 형사 책임을 지우는 제도.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없어졌다. 12.사투리를 이르는 말. 14.경치나 고적 등으로 널리 알려진 곳.

〈함께 풀어봅시다 254회 정답〉

관광 ~. 15.기관이나 조직체 등을 만들어 세움. 연구소를 ~하다. 17.도시의 안. 또는 시의 구역 안. 사무실은 ~에 있었지만 정말 조용했다.

▲지난주 정답자

조정민·광주시 서구 풍암동

이상희·광주시 북구 운암동

▲응모방법

광주일보 지면을 오려 정답을 적어 보내시면 매회 1명씩 추첨, 상품권(2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뉴스퀴즈

68. '한국 골프의 선구자'로 불리는 이 선수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명예의 전당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2004년 5월 미켈롭울트라 오픈에서 우승, 명예의 전당에 가입하는데 필요한 27점을 모두 확보한 이 선수는 또 다른 조건인 10시즌 현역 활동을 지난 8일 맥도널드 LPGA챔피언십 1라운드를 마치면서 채워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LPGA 명예의 전당 회원이 됐습니다.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 박세리 ② 김미현 ③ 박지은 ④ 위성미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11일(음 4월 26일 丙子)

子 36년생 협력자를 만나서 도움을 받는다. 48년생 새로운 일이 생기고 협조자가 달려온다. 60년생 우두머리가 둘이니 선택을 잘하라. 72년생 의외의 得財와 집안의 안정이 있다. 84년생 독신자는 새로운 연인을 만날 기회니 준비하고 기다리라. 행운의 숫자 : 07, 40

丑 37년생 욕심을 내지 마라 좋은 날이다. 49년생 자녀와 떨어져 살아야 할 경우가 생기지만 좋은 일이다. 61년생 오늘 하루는 외근보다는 내근을 하라. 73년생 진행하던 일이 순조롭게 주변의 도움을 받는다. 85년생 눈을 조금만 낮춰서 현실을 보라. 행운의 숫자 : 15, 36

寅 38년생 호수에 배를 띄우나 행운은 반반이다. 50년생 신사나 문서에 눈물 날까 두렵다. 62년생 과도한 투자만 없으면 결과는 솔솔 하리라. 74년생 오랫동안 기다리던 消息이 東에서 온다. 행운의 숫자 : 09, 38

卯 39년생 옛 일이 괴로우니 다시 한번 살펴보라. 51년생 가정이 소란하니 조용히 해결하라. 63년생 처음에는 당황하나 흉이 복으로 변하는 형상이다. 75년생 허황된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으니 현실로 돌아오라. 행운의 숫자 : 13, 26

辰 40년생 미움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 사랑으로 보내라. 52년생 해묵은 일은 먼지처럼 날리고 화해하며 지내라. 64년생 다툼으로 미움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고 또 신중 하라. 76년생 연인과 접속이 된다. 행운의 숫자 : 06, 37

巳 41년생 겉으로는 싫어하나 속으로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다. 53년생 자신과 가정, 직장사이에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다. 65년생 보금자리를 매만져라 사랑이 보인다. 77년생 오늘은 밖에서 자동차를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 19, 29

午 42년생 가정과 마음의 중중한 고통이 있을 수 있다. 54년생 주변의 기만과 허황된 문서를 조심하면 대손은 없다. 66년생 부부간의 이해 있는 대화와 자녀를 살펴보라. 78년생 어려움은 조금만 노력하면 해결되리라. 행운의 숫자 : 04, 45

未 43년생 믿는 도끼도 세심하게 살펴보라. 55년생 합자 동업 신규투자는 深思熟考후 결정하라. 67년생 건강이 수상하니 검진을 받아보라. 79년생 친구가 다시 도와주고 새 문서를 잡고 가내는 경사로다. 행운의 숫자 : 08,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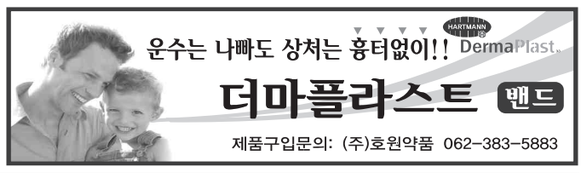
申 44년생 겉으로만 어려울 뿐 행동하면 쉬우리라. 56년생 사랑은 있으나 만날 수 없으니 안타까울 뿐이로다. 68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고 내실 있게 득리한다. 80년생 겉은 화려하나 속내는 虛하니 실속 있게 처신하라. 행운의 숫자 : 05,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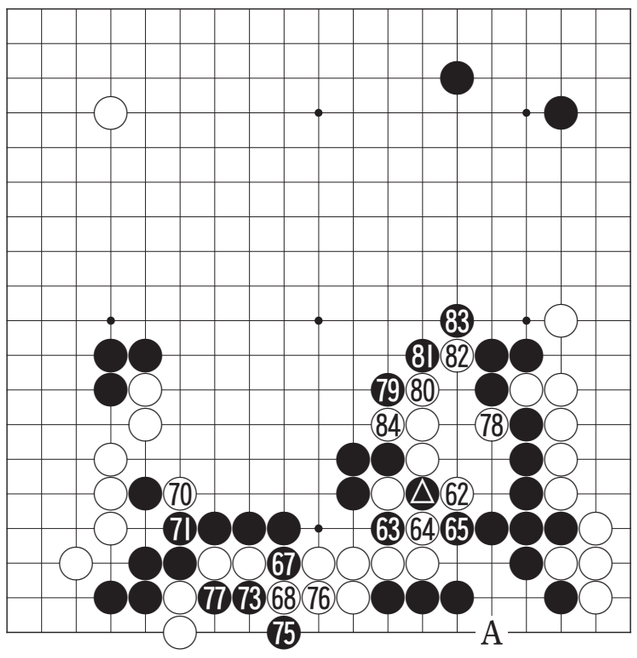
酉 45년생 강물이 순류하니 편안한 하루다. 57년생 직장에서 신중하게 처신하고 가정에서 화목 하라. 69년생 튼튼한 제방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다. 81년생 지출을 가장과 의논하라. 행운의 숫자 : 22, 35

戌 46년생 집안의 평화는 참아야 한다. 58년생 근자에 만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하니 선택을 잘하라. 70년생 이웃을 살펴보고 자선을 베풀면 큰 득이 생기리라. 82년생 이성 보다 친구 만나기 좋은 날이다. 행운의 숫자 : 02, 26

亥 47년생 자신을 낮춰라. 59년생 여러 가지 고통이 나타날 수 있으니 분수를 지켜라. 71년생 어려움은 없으나 친인척의 변동으로 걱정이 생긴다. 83년생 뜻밖의 환심은 사액이 개입하니 조심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0, 27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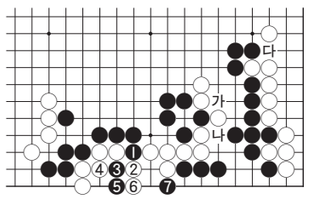




제16회 랑일배 직장대항 1회전

기세에서 밀린 타협 4보(62~84)

白 최한용 5단 (조선대) 黑 백동원 5단 (광주시청 A)



〈참고도〉

흑 ◬로 끊은 것이 한박자가 늦었다. 그러나 그래도 이 수가 훌륭한 승부수가 될 수도 있었다.

백 64로 몬 것은 기세라고 할 수 있으며 이때 백동원 5단은 즉각 65로 끊어 승부수를 던졌는데 이 수가 성급했다. 지금은 오히려 한박자를 늦출 때로, 이 수로는 '참고도'의 흑 1부터 7까지를 결행하고 '가'와 '나'로 끊는 것에 승부를 걸어가야 했다. 이 패는 우변에 '다'로 뚫는 팻감 등이 많아 백이 상당히 괴로웠을 것이다.

실전은 65로 끊는 바람에 패에 지면 흑도 중앙 대마가 약해져 부담이 크다. 그래서 결국 73으로 끊는 정도로 타협을 했는데 이것은 78로 끊는 단점 등이 남아 기세싸움에서 흑이 밀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흑 79는 그냥 'A'로 살아둘 곳. 84로 뚫려 흑이 바빠지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KYOBO 교보생명

바둑소식

조훈현, 지지옥션배 3연승

조훈현 9단이 지난 9일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기 지지옥션배 여류 대 시니어 연승대항전 18국에서 윤영민 2단을 195수 끝에 흑 불계로 꺾고, 3연승을 달렸다.

조 9단은 좌상귀 정석에서 백에게 두터움을 내주고 실리를 벌어들인 후 '선실리 후타개' 전략으로 윤 2단의 도전을 뿌리쳤다.

남성팀은 유일한 생존자인 조 9단이 여류팀 5명을 모두 이겨야 승리할 수 있다.

조 9단은 11일 같은 장소에서 이영신 4단을 상대로 4연승에 도전한다. 대회 우승상금은 5천500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923>

I've had a light fever

전 미열이 좀 있습니다

A:What's the matter, Emily?
B:Well, **I've had a light fever** for 10 days.
A:That's pretty long. Is there anything else that's bothering you?
B:Sometimes I have a ringing in my ear.
A:All right. let's check everything completely.

A:무슨 일이지? 에밀리
B:10일 째 **미열이 있거든요.**
A:그거 너무 오래가는데. 다른 데 불편한데 있니?
B:가끔씩 귀가 울려요.
A:알았어, 철저히 검사해보자구.

가끔은 하루 종일 재채기를 해요.
= I sometimes sneeze all day long.
어떤 것에 알레르기가 있나요?
= Are you allergic to something?
저는 저혈압입니다.
= I have low blood pressure.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요우 니혼고 <923>

ご注文(ちゅうもん)はよろしいですか

주문 하시겠습니까

A:**ご注文(ちゅうもん)はよろしいですか。**
B:すしの盛(も)り合(あ)わせをわさび抜(ぬ)きでお願(ねが)いします。
A:はい、かしこまりました。

A:주문 하시겠습니까?
B:모듬 초밥을 와사비 빼고 주세요.
A:네, 알겠습니다.

盛(も)り合(あ)わせ : 모듬(선술집에 가면 메뉴판에 자주 눈에 띕니다)
抜(ぬ)き : 빼고
ネギ抜(ぬ)きで : 파 빼고
にんにく抜(ぬ)きで : 마늘 빼고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114>

我想寄一封信

저는 한통의 편지를 보내려고 해요

A:您好，**我想寄一封信。**
Nínhǎo, wǒxiǎng jì yì fēng xìn。
닌하오, 워 시앙 지 이 펑 신.
B:请问，您寄到哪儿?
Qǐngwèn, nín jì dào nǎrl?
칭 원, 닌 지 따오 날?
A:寄到韩国，几天可以到?
Jì dào hánguó, jǐ tiān kěyǐ dào?
지 따오 한 구워, 지 티엔 커이 따오?
B:寄挂号信3天可以到。
Jì guà hào xìn sān tiān kěyǐ dào。
지 꾸아 하오 신 싼 티엔 커이 따오.

A: 안녕하세요, **저는 한통의 편지를 부치려고 해요.**
B: 잠깐 여쭙겠습니다, 어디로 부치시게요?
A: 한국으로 보내려는데, 며 칠 날 도착될까요?
B: 등기(우편)로 편지를 보내면 3일 만에 도착할 수 있어요.

寄 [jì] (우편으로) 부치다, 보내다
挂号信 [guàhàoxìn] 편지를 등기(우편)로 하다

〈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
☎ 3838-868

한자 이야기 <540>

壓 卷 (압 권)

누를 압, 책 권

압권(壓卷)은 '책을 누른다'는 뜻으로 여러 책이나 작품(作品)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 '압권'이라는 말은 옛날 중국의 과거제(科擧制)에서 유래하였다. 과거제는 관리등용시험으로 중국에서는 수(隋)나라 때부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말 이후 관리등용의 기본제도였다. 과거에는 수많은 유생(儒生)이 과거에 응시하여 3차에 걸친 시험을 끝내고 최종 급제(及第)가 결정되었다.

채점관들은 마지막 시험의 채점(採點) 답안지를 임금에게 올려 재가(裁可)를 얻어 장원급제(壯元及第)를 결정하였다. 이때 임금에게 올리는 합격자들의 답안지 묶음의 제일 위에 1등으로 뽑은 답안지를 올려놓았다고 한다. 즉 1등의 답안지가 나머지 답안지를 위에서 누르고 있다고 하여 '압권(壓卷)'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다.

압권의 영어 표현은 '하이라이트(highlight)'가 된다. 따라서 여러 책 가운데서 제일 잘 지은 책, 또는 같은 책 가운데서 특별히 잘 지은 글의 의미로도 사용한다.

〈한예원(韓睿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6505